# 트럼프, 내년 4월 방중…시진핑 국빈 방미 초청

부산 정상회담 후속 1시간 통화…미중 정상 같은해 상대국 방문 성사 주목 트럼프 "큰 그림에 시선"…시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4월 중국 을 방문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자격으로 미국 답방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매 우좋은전화통화를했다"며이같은내용을소셜 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난 이를 수락했다"

고 밝힌 뒤 시 주석은 "내년 중(4월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

2026년 미중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빅 이 벤트'를 예고한 것이다. 다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대를 수락했는지에 대한 중국 측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

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 으로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다만, 당시 시 주석의 방미는 국빈 자격이 아 니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경우 양국 정상이 같은 해 상대국을 방문하는 사 례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 전화 통화는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대좌한 이후 당시 합의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일 전 한국 에서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로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 신이자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 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 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중 국의 관계는 대단히 강력하다"며 "우리는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나는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지난달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성 공적으로 회담을 열어 많은 중요 합의를 달성했 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조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세계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며 "부산 회담 이후 중미 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정 호전됐고 양 국과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 롭고(合則兩利)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鬪則俱 傷)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 증명된 상식으로, 중 미의 상호성취·공동번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 히는 현실"이라며 "양국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 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 44개국 "온라인스캠, 국제공조 대응 시급"

#### 韓주도 공동선언문 채택

#### "인신매매 현실서 자유로운 국가 없어"

한국과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포 함한 유엔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시간) 공 동성명을 내고 온라인 스캠(사기) 등 기술을 이 용한 인신매매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 사회 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구금 및 피살 사태를 겪은 한국이 공동성명을 주도했다.

44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서 열리는 유엔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 개최에 앞서 약식 회견을 열고 "인신매매 가해 자들은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 착취 및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으 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온라인 스캠 및 초국가 조 직범죄와의 연계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범죄의 증가로 인도적 위기와 인권에 대한 우려 가 심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가 시급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4개국은 "인신매매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예방·처벌·보호·공조가 필요하

고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 강화, 피해자 식별, 법 집행 강화, 생존자 역량 강화, 사법 접근 및 구제 보장 등이 포함된다"며 "정부·민간·시민사회 를 포함하는 지역적 및 전 세계적 협력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회견 및 공동선언문 작성은 한국 정부가 주 도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전했다.

유엔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2013 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열어왔다.

### "미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바르구티 아들과 결혼"

#### 유니버스 대회서 이스라엘과 신경전도 도했다는것이다.

국제 미인대회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한 여 성이 팔레스타인 무장투쟁 세력과 연계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예루살렘포스 트 등에 따르면 이달 태국 방콕에서 치러진 미 스 유니버스 2025 대회에 팔레스타인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가한 나딘 아유브(27)의 남편이 샤 라엘은 이를 거부했다. 라프 바르구티로 확인됐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아유브가 테러리스트 수 장의 아들과 결혼했다"며 샤라프 바르구티의 아버지가 마르완 바르구티 (66)라고 설명했다.

아유브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수차례 남편 의 성씨 '바르구티'로 불렸고, 마르완 바르구티 의 부인이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글을 남기기

마르완 바르구티는 2000년 시작된 제2차 인티 파다(팔레스타인 무장봉기)의 주도자다. 그는 이스라엘인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22년간 복역 중이다.

오랜 수감생활 때문에 '요르단강 서안의 만델 라'로도 불린다. 하마스는 휴전 협상 과정에서 바르구티의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스

인티파다란 아랍어로 반란이나 봉기, 저항운 동 등을 뜻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 두 차례 대규모 무장투쟁에 나선 일을 가 리킨다.

이달 초 미스 팔레스타인 자격으로 미스 유 니버스 대회장 무대에 선 아유브를 미스 이스



미스 유니버스 무대에 선 미스 팔레스타인 나딘 아유브.

/EPA=연합뉴스

라엘 멜라니 시라즈가 곁눈질로 노려보는 듯 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며 화제가 되 기도 했다.

시라즈는 지난 17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 서 "나만 그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영상이 편집 됐다"고 해명했다. 시라즈는 또 이와 관련해 성 폭행, 살해 등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 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서 헤즈볼라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의 장례식이 열린 가 운데 지지자들이 그의 관을 운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연합뉴스

### 헤즈볼라 암살된 2인자 분노 속 추도…보복 예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한 친이란계 레바 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 바타바이의 장례식이 24일(현지시간) 열렸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수도 베이루트 남 부교외 지역에서 치러진 타바타바이와 다른 조 직원들의 장례식에는 수백명이 모여 추모했다. 이들의 관은 헤즈볼라의 상징인 노란색 깃발로 덮여 있었다.

장례식 참석자들은 반(反)이스라엘·미국 구 호를 외치고 헤즈볼라 지도자들과 이란 최고 지 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초상화 를 들고 다니며 저항 의지를 다졌다.

헤즈볼라에서 나임 카셈 사무총장 다음으로

높은 고위 인사로 군사 부문을 담당해왔던 타바 타바이는 전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했다.

타바타바이는 헤즈볼라 내에서 이스라엘 침 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던 정예 라드완부대 를 지휘했던 인물로 미국은 2016년부터 그에게 500만달러(약74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번 공습으로 타바타바이 외에 4명의 조직 원이 숨지고 최소 주민 24명이 다친 것으로 알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 한 보복을 예고했다.

현재 헤즈볼라 내부에서는 대응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